



청량사 어린이법회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동근소리 합창단의 제 2회 정기연주회가 7월 23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 장면.

# 첩첩산중 동근마음 음성공양으로

## 청량사 동근소리 합창단 제 2회 정기 공연

첩첩산중 경북 봉화 산골마을 사찰의 신도들이 모여 만든 합창단이 공연을 펼친다. 청량사 동근소리 합창단의 제 2회 정기 연주회가 7월 23일 오후 7시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동근소리는 수행의 한 방편으로 노래하는 합창단이며 이번에 두 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동근소리’라는 합창단의 명칭은 각자의 목소리가 동글게 둥글게 어우러져 환희로운 마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의미가 담겼다. 첩첩산중 시골 청량사의 도량에 사부대중의 마음이 한데 모여 곳곳에 뿌려지듯 불음을 전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찬불의 향연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준 동근소리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는 찬불가, 국악, 가요 등의 장르를 아우르며 신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 △1부는 연꽃향기, 바람부는 산사, 마음 등이 공연되며 △2부는 좋은 인연,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3부는 꿈 찾아가 가리라, 몽계구름, 짬짜라, 사랑의 밤테리 등이 이어진다.

### 단원은 청량사 어린이법회 학부모

### 매주 화요일 예식장 빌려 연습

### 어린이 밴드·포마 풍경도 무대에

동근소리합창단은 청량사 어린이법회에 오는 어린이들의 부모들로 구성됐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정기 모임을 갖고 연습을 하는데 그 장소가 영주의 한 예식장이다.

지휘를 맡은 이종만 씨는 “시골 마을이

다 보니 마땅한 연습장소를 찾지 못했는데 예식장을 운영하는 회원이 공간을 내어주어 연습을 하게 됐다. 보통 사찰에는 어머니 합창단이 많지만 청량사는 혼성 합창단이다. 부부가 함께 합창단에 참여하니 좀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고 전했다. 이들의 열정에 감동 받은 이종만 지휘자 역시 매주 서울에서 영주까지 오가며 합창단 지도에 매진했다.

또한, 사이 공연으로는 청량사 어린이 밴드의 ‘연꽃등 밝히는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이 좋아요’ 등도 선보여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펼친다. 청량사는 “어린이 법회가 활성화되면서 청량사에는 다양한 신행단체들이 많이 생겼다. 이번 공연에서는 청량사의 어린이 밴드, 사물놀이 팀 포마풍경 등도 무대에 오르며 자녀와 부모가 한 무대에 오르는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이리랑 연곡과 뱃노래 공연도 이어진다. (054)672-1446 정혜숙 기자

# 강한 생명력 돋보이는 브르타뉴 해송 화폭에

## 임무상 화백 프랑스 초대전

불자 화백 임무상이 7월 27일~8월 2일 프랑스 트레가스텔시의회센터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작가는 유럽 전시 당시 들린 브르타뉴의 해송을 보고 반해 작업한 작품 중 30여 점을 전시한다.

국내에서도 소나무를 소재로 다양한 작업을 해오던 작가는 이번에는 유럽까지 그 영역을 넓혀 새로운 작품세계를 펼친다. 임무상 화백은 “2013년 브르타뉴의 화강암 해안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소나무를 보고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다 바람에 나무의 줄기는 휘어져 있지만 단단히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그 모습에서 강한 생명

력을 느꼈다. 해안의 소나무를 관찰하며 수많은 스케치를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한 100여 점 중 3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강 임무상 화백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중앙미술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300여 회의 주요 그룹전 및 초대전과 한국미술세계화전(LA, 뉴욕, 파리), 한류 4인의 개성전(일본), 한국미술 12인 초대전(독일), 취리히아트페어 등 다수의 국제전에 참가했다. 2013년에는 파리 셀렉티브와 이태리 아타시마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임무상 화백의 '해변의 소나무' (부분도)



# 불교 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 경계의 벽 허물 때 이성·인류애 완성

## 법·언어철학적 상상력 돋보이는 영화 '더 리더'

지난 해 제4회 '박경리문학상' 수상작가로 선정된 뒤 베른하르트 솔링크의 대표작인 <더 리더(The Reader)> 책 읽어주는 남자'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더 리더>는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돼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원작에 충실했던 영화 '더 리더'는 법철학에 대한 심원한 탐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도 그럴 게 원작자인 베른하르트 솔링크는 독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뒤 여러 대학에서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먼저, 간단히 줄거리를 살펴보자. 10대 소년 '마이클'은 길을 가던 중 열병으로 인해 심한 구토를 일으킨다. 이를 본 30대 여인 '한나'가 도움을 준다. 마이클은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한나를 찾아 갔다가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결국 둘은 연인관계가 된다. 한나는 육체적 관계를 가지기 전에 책을 읽어 달라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말 한마디 없이 마이클을 떠난다. 세월이 흘러 법대생이 된 마이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련 재판에 참관하려고 갔다가 피고인의 신분인 한나를 보게 된다. 다른 피고들과 달리 한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다만 "사건의 주범이었으나"는 판사의 질문에는 부인한다. 그러나 기회서를 누가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글씨를 써보라고 하자 그제야 자신이 주범이었음을 인정한다. 한나는 문맹이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마이클은 예전에 한나에게 읽어줬던 책들을 육상으로 녹음한다. 그리고 그 테이프를 한나에게 보낸다. 한나는 테이프를 들으면서 독학해서 문맹에서 벗어난다. 출소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둘은 만난다. 그러나 그 만남 이후 한나는 자살하고 만다.

서서만 보자면 '더 리더'는 마이클과 한나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더 리더'는 과거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통합' 운운하는 현 시점에서 '더 리더'가 주는 교훈은 제법 의미심장하다. 영화(혹은 소설)의 서사 속에 용해된 독일의 과거사 문제와 한국 사회의 과거사 문제가 근원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면, 마땅히 그 사회 구성원의 가슴에 맺힌 멍울을 풀어줘야 한다. '상생(相生)'의 선 과제는 '해원(解冤)'이다.

'더 리더'가 훌륭한 작품인 이유는



영화 '더 리더'는 '법의 경계'라는 심원한 주제 의식을 재미있고도 감동적이게 풀고 있다.

### 승찬·도신 스님 선문답서 보듯 구속과 해탈은 마음가짐에 달려 과거사 문제는 해원상생이 해답 경계는 배제 아니라 포용 위한 것



'법의 경계'라는 심원한 주제 의식을 재미있고도 감동적이게 풀고 있기 때문이다.

법철학자 조르주 아감벤은 <호모사케르>라는 명저를 통해 주권자의 경계 밖에는 '벌거벗은 인간'이 있다는 것을 논증한 바 있다. 경계 밖의 인간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나치즘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놀라움은 나치즘의 가해자를 경계 밖의 인간으로 상정한 데 있다.

한나는 평생 동안 문맹인 것을 숨기며

살아온 여자이다. 제도권 경계 밖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한나는 설령 무기징역을 받을 지라도 문맹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영화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명료하다.

"법의 경계는 배제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3조 승찬 스님과 4조 도신 스님이 주고받은 선문답을 떠올리게 된다.

도신 스님이 묻는다. "해탈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지요?" 승찬 스님이 답한다. "누가 너를 구속하는 이가 있더냐?" "아무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구속하는 사람이 없다면, 너는 이미 해탈한 사람일진대 어찌하여 굳이 해탈을 찾느냐?"

승찬 스님과 도신스님의 선문답에서 알 수 있듯 구속과 해탈의 경계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더 리더'는 법철학뿐만 아니라 언어 철학적인 메타포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맥미는 한나가 마이클이 보내 준 테이프를 들으면서 가슴 벅차하는 장면이다. 한나의 삶에서 가장 꽃 피는 시절은 마이클과 보낸 나날일 것이다. 누군가 대신 읽어주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 없었던 한나. 한나에게는 사랑이 곧 대화였고, 대화가 곧 사랑이었다. 대화는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통로이다. 경계의 벽을 허물 때만이 사랑은 완성된다. 그 사랑은 이성애이기도 할 것이고, 인류애이기도 할 것이다.

유용오 작가

안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y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 안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y

우주적 합일의 탄트라 상징 안뜨라 안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안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년 이상의 축복과 절로 안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를 회귀하기 위한 명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탄트라 상징으로 안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안뜨라는 전통적 사찰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안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특수성과 특수성을 모두 사용하는 안뜨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으로서는 합을 가지는 안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은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중 20,000원, 하 27,000원 | 세트 전 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